“마애불 바로 세워 미래천년 열자”

천년을 세우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봉축기도

5월 24일, 경주 남산 열암곡에서
성원 스님 “사부대중 힘 모으자”
사부대중 간절한 마음 담긴 발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경주 남산에 석가모니불 정근기도가 울려 퍼졌다.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위원장 진우)는 5월 24일 오전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전에서 천년을 세우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봉축기도’를 봉행했다.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린 이날 봉축기도는 육법공양, 관불의식, 인사말, 발원문, 축원 등으로 진행됐다.

경북불교대학 불광사 신도회 다도반의 육법공양에 이어 천일기도 정준 중인 기도법사단장 환풍 스님의 관불의식이 이어졌다.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봉축인사에서 바로 세워지길 간절히 기원하며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성원 스님은 “우리가 마애부처님 전에 천일기도를 하는 이유는 지혜와 자비로 나와 세상 중생을 구하겠다고 서원하기 위해서”라며 “열암곡 마애부처님 천일기도가 원만히 회향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더 자유로워지고, 세상 중생들도 보다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세상 모든 이들이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깨달음의 세상으로 함께 건너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사부대중은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긴 발원문을 낭독했다. 천호덕 대구 불광사 신도회장는 동참자들을 대표해 낭독한 발원문에서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됐던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겠다”고 발원했다. 천호덕 신도회장은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은 나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불사이며 과거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천년을 여는 것이고 통일신라의 꿈과 비원을 실현하는 거룩한 불사”라면서 “오늘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불제자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불교중흥과 국운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평화와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말했다.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가 5월 24일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전에서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봉축기도’를 봉행했다.

이날 봉축기도에는 포교사단 경북지역단 포교사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미숙 경북지역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천년의 침묵이 천년의 감로법문으로 이어지도록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원력을 모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종단에서 부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니 희열이 쏟아진다”면서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것은 천년의 침묵을 깨고 현현하시는 부처님 자비광명과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위대한 일이자 불자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도법사단장 환풍 스님은 “마애부처님이 세워지는 날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열심히 기도 드리겠다”고 말했다.

‘불자대상’ 허재, 포교원 홍보대사 위촉

5월 23일, 조계종 신도 등록 홍보 나서기로

불자 농구인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재 씨가 조계종 신도 등록과 모바일 신도증 홍보에 나선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5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허재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사진〉 신도 등록을 홍보하고 저변 확대를 위해 위촉하는 홍보대사는 앞서 배우 남일우 · 김용림 · 남상진 씨를 시작으로 개그맨 이수근, 산악인 엄홍길, 야구선수 이대호, 기상캐스터 이익선 씨가 이름을 올렸다. 허재 씨는 지난 2020년 불자대상을 수상한 인연으로 포교원 홍보대사를 맡게 됐다.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포교원장 범해 스님에게 위촉장을 받은 허 씨는 “홍보대사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이번 홍보대사는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불교가 더 널리 알려지도록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범해 스님은 “홍보대사 위촉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종단이 지금까지 신도 등록에 소홀했다. 앞으로 불교 저변 확대와 신도 등록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대형불화 6점 정밀조사 결과 ‘한눈에’

조계종 · 문화재청, ‘2022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발간

‘장곡사 미륵불 괘불탱’ 등
국보 보물 괘불 자료 수록



장곡사 미륵불 괘불탱 등 국보, 보물 대형불화를 정밀조사 결과를 수록한 보고서가 발간됐다.〈사진〉

조계종(총무원장 진우)과 문화채청(청장 최응천),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현문)이 함께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의 2022년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은 대형불화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복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작됐다. 문화재청은 매년 대형불화의 과학적 분석 결과와 채색 정보, 관련 유물의 원형 자료와 보존현황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정밀조사 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며, 이번이 8번째 결과물이다.

지난해 조사한 괘불도는 △장곡사 미륵불 괘불탱(국보) △문경 김룡사 영산회 괘불도(보물) △진천 영수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보물) △통영 안정사 영산회 괘불도(보물) △적천사 괘불탱 및 지주(보물) 등 6건이다.

이번 조사 결과 ‘문경 김룡사 영산회 괘불도’의 문양 및 장신구 등에서 금박과 함께 많은 은박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간 일부 괘불도에서 은박이 한정적으로 사용된 것은 확인되었으나 ‘문경 김룡사 영산회 괘불도’의 경우 특히 사용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보아 부족한 금박을 대신하는 보완재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게 됐다.

또한 ‘장곡사 미륵불 괘불탱’의 가장자리에 불화에 생명력과 신성성을 불어넣는 복장(腹藏)의 의미로 기록된 범자(梵字)를 확인했다. 특히 해당 범자는 현존하는 괘불도 중에서 가장 이른 예로, 이를 판독해 확인한 진언(眞言)과 도판을 보고서에 수록했다.

이 같은 대형불화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새롭게 지정되는 등 비지정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와 보존관리에도 성과를 보였다.

올해에는 △포항 보경사 괘불탱(보물) △영주 부석사 오불회 괘불탱(보물) △천은사 괘불탱(보물) △해남 대흥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선암사 석가모니불 괘불탱(보물) △남양주 흥국사 괘불도 등 6건에 대해 정밀조사가 진행된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괘불도의 고화질 사진 등 원형정보는 문화유산 지식e음(portal.nrich.go.kr)의 ‘한국의 괘불 갤러리’에서 공개된다. 신성민 기자

민추본, 정전 70년 한마당

6월 8일 서울 조계사 마당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가 6월 8일 오후 7시 서울 조계사 마당에서 ‘정전협정 체결 70년 평화기원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평화기원문화제는 평화의 울림, 평화의 몸짓, 평화의 노래로 공연이 구성되어 있다. 평화의 울림에는 〈야단법석〉(대표 홍인호)의 타악공연과 고금 스님의 법고 울림이 준비되어 있다. 평화의 몸짓으로는 〈풍물놀이연구소〉 김현주 님의 ‘한국전쟁 희생자 위령 도살풀이’ 공연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와 함께 하는 통일노래 율동 배우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추본은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아 진행되는 다양한 평화활동을 통해 불자들과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평화의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남과 북이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 70년 동안 거듭되고 있는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02)720-0531

임은호 기자



우리 모두 내일은 축구왕!

삭발 염의한 동자승과 조계사 선재어린이집 숲속반 원아가 축구로 한판 승부를 펼쳤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5월 24일 경내 백송 앞마당에서 ‘제1회 조계사 천진불배 어린이 축구대회 내일은 축구왕’을 개최했다. 동자승과 원아들을 각각 5명으로 나눠 A팀과 B팀으로 편성한 뒤 10분 동안 승부를 가르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동자승 A팀과 숲속반 B팀이 맞붙은 최종 결승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동자승 A팀이 우승했다. 주지 지현 스님은 “경기에 참여한 동자승과 선재어린이집 원아 모두 최고의 선수들”이라고 칭찬했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제공=조계사

